

홍준표 '잔인한 10월' 되나 손학규



서울시장 선거 무소속 안철수 변수 등장 성패여부 따라 그들의 정치적 미래 달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지지율 상승의 계기로 삼고 대선 주자로서의 가능성을 재확인하게 될 전망이다. 내년 총·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최소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야 선거 패배 이후에도 후일을 도모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치 않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서울시장 후보 경선 방식과 시기를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데다 무소속 변수까지 부상하면서 상황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무소속 출마설이 제기되고 있는 안철수 원장이 최근 사석에서 민주당 입당 제의에 "저렇게 혼란스런 분위기로 어떻게 선거를 치르겠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손 대표는 우선 당내 리더십을 더욱 굳건히 하고, 아울러 안철수 후보의 무소속 출마설로 뒤엎힌 선거 구도와 판세를 반영한 필승카드 찾기에 주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후보 선출 과정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권력 교체를 위한 야권통합의 촉매제가 되도록 다른 야당 및 시민사회 세력과도 접촉을 다각화한다는 방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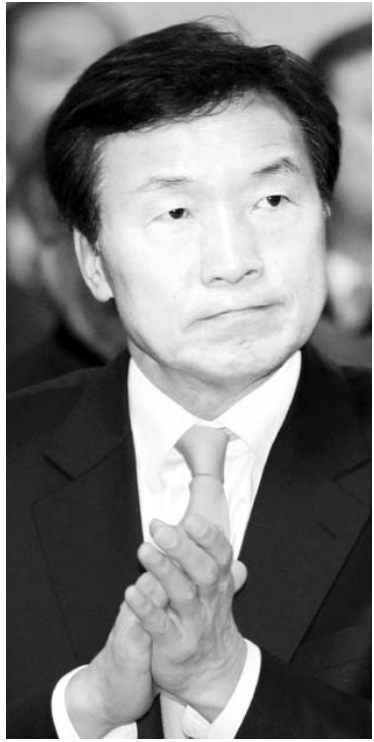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도 고민이 깊어가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패배한다면 책임론에 휘말릴 대표직 수행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차라리 대권도 꿈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

가장 골치 아픈 부분은 집안 문제다. 후보를 둘러싼 내홍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유력 후보로 꼽히는 나경원 최고위원을 둘러싼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홍준표 대표와 박근혜 전 대표는 우호적으로 나 최고위원에 대한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뚜렷한 대안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친이(친 이명박)계 의원 일부가 나 최고위원을 지지하고 있지만 친박(친 박근혜)계와 소경파들이 부정적이라 갈등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여기에 후보 선출 방식 논란까지 더해졌다. 지난 1일 저녁 서울시장 소속 의원들이 경선 방식으로 후보를 정하기로 결정했지만 당내 반대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경선으로 후보를



정하게 되면 외부인사를 영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 원장과 박원순 희망제작소 상임이사 선거 출마 여부도 고민거리다. 야권이 이들과 함께 단일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선거 구도는 크게 불리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박근혜 전 대표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도 홍 대표의 책무지만 현실은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한나라 '서민복지 확대'로 가닥

의원연찬회, 재정 건전성 해치지 않은 범위서 적극 수용키로

한나라당의 복지 정책이 '서민 복지 확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2일 천안 지식경제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의원연찬회에서 비공개 복지정책 토론회를 열어 재정건전성을 해치지 않은 범위서 복지를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선별복지 대 보편복지'라는 이분법적 대립구도에서 벗어나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복지의 철학·원칙·유형 등을 재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김기현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복지와 관련해 큰 줄기가 잡혔다"며 "앞으로 정책위가 중심이 돼 이 문제를 깊이 논의하고, 필요할 때 의원총회를 거쳐 결론을 조속히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복지 문제가 핫이슈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야당이 내놓은 '복지 논쟁'에서 빠져나오고, 한나라당의 역동성을 함께 보여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그동안 백가쟁명식으로 이뤄졌던 복지 논쟁이 이번 연찬회에서 사실상 '당론' 수준의 가닥을 잡은 것은 여권 유력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의 최근 '복지 당론' 발언에 기인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박 전 대표는 그동안 보수계의 원칙 속에서 '적극적인 복지'로 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비공개 토론회에서 친박(친박근혜)계 현기환 의원은 "한나라당의 복지 용어는 어렵다"며 "한나라당은 서민복지, 민주당은 부자복지'로 하는 등 복지 정책을 한마디로 답을 용어를 찾아 서울시

장 보선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적인 이정현 의원은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고령화 정도, 재정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자립·자활할 수 있는 나름의 복지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이(친이명박)계인 원희목 의원은 "한나라당이 복지를 소극적으로 하는 것처럼 비쳐 안타깝다"며 "새로운 용어 및 프레임 개발" 필요성을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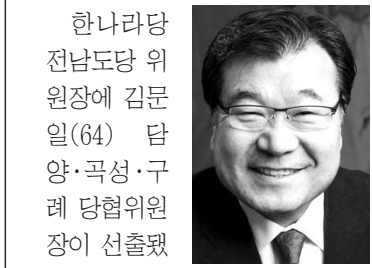
이 같은 복지 기초 전향 움직임과 관련, 한나라당 관계자는 "저출산, 사각지대, 저소득층, 재정건전성 등의 변수를 우선 순위로 놓고 복지를 확대해 나가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와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10월은 '잔인한 달'이 될 전망이다. 내년 총·대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따라 그들의 정치적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우선 차기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의 부상으로 야권의 대표 주자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운명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결과에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한나라 전남도당 위원장에 김문일씨



한나라당 전남도당 위원장에 김문일(64) 담양·곡성·구례 당협위원장 선출됐다. 한나라당 전남도당은 2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위원장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김 위원장이 240표를 얻어 236표를 획득한 천성복 후보를 4표 차로 누르고 신임 도당위원장에 당선됐다.

김문일 신임 도당위원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그동안 당을 위해 헌신해온 당원들 모두가 참여하는 화합하는 도당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내년 총선과 대선에서 전남도당의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며 "새로운 도당을 만들기 위해 사교 당협인 영광·함평·장성, 나주·화순·순천 등 3곳의 위원장을 최대한 빨리 임명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내년 총선과 대선은 정말 중요한 선거기에 도당위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호남이 그동안 역사의 고비 때마다 정의와 진실 편에서 서서 국가 발전에 큰 역할을 했듯이 도당위원장으로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당원들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정몽준, 박근혜에 연일 '독설' 배경은?

존재감 부각...대권행보 본격화

한나라당 정몽준 전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를 겨냥, 연일 과장공세를 퍼붓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서울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 박 전 대표가 "시정까지 걸 문제는 아니었다"고 언급하자 정 전 대표는 다음날인 지난 1일 "부적절하고 잘못된 발언"이라고 한 데 이어 2일에도 "정말 너무 한가하진 말씀"이라고 비박했다. 또한, 3일에는 박 전 대표가 미국 외교전문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놓고 "대학교수가 썼다는데..."라며 사실상 대필 의혹을 제기했다.

정치권에서는 정 전 대표가 여권의 잠룡 가운데 여론조사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는 박 전 대표와 대립

각을 세우 '대항마'로서의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전략으로 분석하고 있다.

최근 사회복지재단인 '아산나눔재단'에 사재 2000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화제가 됐던 정 전 대표는 오는 6일 자서전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등 대권 행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대변인적인 이정현 의원은 지난 2일 정몽준 전 대표가 '대필'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이를 밝히지 못하면 거짓말을 한 것"이라며 "사실이 아닌 비난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정가 라운지

문재인 "총선·대선 승리 비결은 통합"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2일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비결은 바로 통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재인 노무현 재단 이사장은 2일 "내년 총선과 대선 승리의 비결은 바로 통합"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광주 동구 KT 빌딩 3층에서 열린 '당신들이 꿈꾸는 나라'라는 주제의 정치콘서트에서 "내년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야권후보 단일화를 통해 한나라당 후보와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이사장은 "지난해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에 했던 야권 연대방식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다"라며 "혁신과 통합은 확실한 방법으로 통합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 "이는 국민의 기억할 수 없는 요구"라며 "이제는 진보개혁 진영이 힘을 합치기만 하면 집권이 가능해졌지만 정체성, 당원 구조가 다르다는 등의 이유로 나뉘어 서로 힘을 합치지 않으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FTA농어업인 지원 강화 추진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김효석(민주당) 의원은 4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시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

다. 개정안은 FTA 발효로 농축산물 가격이 지난 5년 평균 가격의 90% 미만으로 떨어지면 차액의 90%를 직불금 형태로 보전하고 평균가격 산정시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농축산물 가격이 5년 평균가격의 85%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에 피해보전직불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발동요건으로는 피해보전직불금의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어업인이 거의 없다"며 "제도를 보완해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중, 저임금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민주당은 1일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저임금 근로자의 사회보험료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2010년 3월 현재 380만명의 근로자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3대 사회보험 어느 하나에도 가입이 되지 않은 상태"라며 "보험료 지원으로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영세사업주의 사회보험 가입을 장려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저임금 근로자와 고용주가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의 50% 한도 내에서 정부가 보험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중한 우리자식 영당이를 차버리자!
젊은이여 할수있다는 사고로 도전하라!
호남의 미래들이여 세계와 호흡하라!

인턴십형외국어연수
「호주Working Holiday」

★좋은직장은 SPEC보다는STORY를 선호
☆외국에나가 영어도익히고 세상도경험해야
좋은 일자리가 여러분에게 다가옵니다!!

⇒ 긍정적인사고와 근면함만 있으면
⇒ 무일푼으로 세계를 경험할수있다.

후원회사 나우에듀컨설팅
· 대표 : 류 식(텔런트 문도양 외삼촌)
· 호주현지업체 · 교육청 어학연수 및 인턴십 대행회사
· 호주현지에서 입학취업주제알선,법률 업무보조

교육회사 압구정영어
· 대표 : 김 형 권(현대그룹출신)
· 원어민 전화화상영어회화 교육
· 호주 출판권 령귀지코스 교육
· ah-english.com 070-7433-0594
*초·중·고 국가영어 능력평가시험 교육중

대한민국 최초! 음성재형의 신기원
무료 음성커뮤니티

어디서나 24시간 100% 직접 통화됩니다. 직접연락하세요!

진실입니다!
그동안 비싼 900 원짜리음성이나 교재의 활용가능성을 500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음성재형서비스의 이점 몇몇이 있습니다.

정말 공짜입니다!
정보이용료 0 원 회선가입비 0 원
일반 전화요금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요금은 추가비용이 단 1 원도 없이 그냥 일반요금입니다.

휴대폰만 사용 가능합니다.

1688-7958 남·여 공통사용

매너남방 10번 | 여행정보방 12번 | 음성 소성방 07번
보글보글방 01번 | 연인만들기방 03번

14년 전통 하트폰
가입문의 062-526-7958 전국 최저요금제
여성무료 080-331-7958

365일 24시간 비회원도 연결
소자본, 무점포, 고소득 ARS사업자 모집 **010-3608-2888**

부실채권(못 받은 돈) 회수대행전문

대여금·거래대금
개인차용금·공증·판결문
각종 못 받은 돈

- 선수금 없음, 후불제(착수금)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 수수료(회수 금액의 30% 이내)
- 재산조사, 신용조사가능

● 텔레마케터 수시모집(여)
(아르바이트·시간제 가능·연령 무관)
● 추심직, 계약상담직원
(광주·전남·전북 센터장 모집)

소중한 재산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한신용정보|주
062-232-7770, 010-4608-6061
(담당:김정수)

사무실 임대
금남로 4가 구, 삼성생명 건물
구, 중앙교회 건너편

· 지하 1층~지상 6층
· 층별 94평 (분할가능)

병원, 학원등
다양한
업종가능

대형 주차장 완비

문의 **062-953-5511**
010-3617-8810